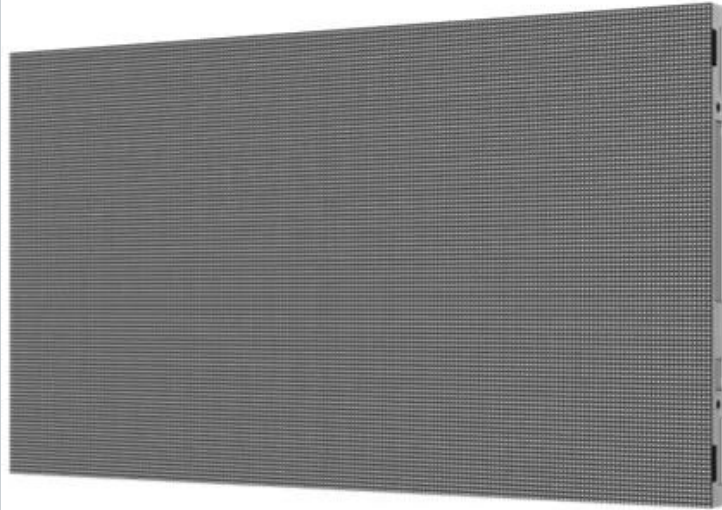


# ICX1.8

1.875mm 픽셀 피치, 고해상도 실내 LED 디스플레이, 초고비용 효율성



- 16:9 화면 비율, 27인치 타일
- 비교할 수 없는 이미지 품질 표현, Rec.709 색역 100% 적용
- 손쉬운 사용, 설치 및 유지보수
- 제품 가동 시간 극대화

새로운 ICX 시리즈는 Barco의 실내 고해상도 LED 타일 포트폴리오를 더욱 확장합니다. 픽셀 피치가 0.9mm에서 1.8mm까지인 27인치 타일은 뛰어난 매끄러운 결과를 제공하며, 이 시리즈에는 LED 벽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#### 우수한 시청 경험

각 타일은 16:9 화면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네이티브 Full HD 또는 UHD 화면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쉬워집니다. 따라서 가장 널리 쓰이는 포맷으로 압축된 부분이나 사용하지 않는 캔버스 없이 풀 화면 디스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또한, 카메라 지원 경계선 수정 기술로 타일들을 쉽게 정렬할 수 있어 경계선이 없는 하나의 캔버스처럼 보이는 경험을 선사합니다.

####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.

이러한 LED 타일은 벽면 장착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전면에서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 깊이가 얕습니다. 개선된 견고성과 지원 모듈 추출 기능을 통해 타일을 쉽게 제거하여 유지 관리나 교체가 필요할 때 픽셀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#### 지속적으로 뛰어난 이미지 품질

Barco 맞춤형 광원을 채택하여 색상이 Rec.709 표준에 도달합니다. 색 영역대, 그레이 레벨 및 세부 표현 측면에서 화면의 품질이 더욱 향상됩니다. 일류 품질의 핵심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 화면의 완벽한 평면성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, 미래의 7/24 제어실 사용에서 전문적인 시각 이미지 렌더링이 최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.

#### 비교할 수 없는 신뢰성

중요한 환경에서 Direct LED 사용을 지원하고 가동 중지 시간을 방지하기 위해 XT 시리즈에는 전원과 데이터 이중화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갑자기 전체 월이 꺼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경고를 보내어 월 고장 시 대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#### 최고의 비용 효율성

ICX 시리즈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는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전체 화면의 긴 사용 수명과 매우 높은 비용 성능을 보장합니다. 보이는 것이 곧 얻는 것입니다.

**기술 사양****ICX1.8****LED 타일**

픽셀 피치	1.875 mm
타일당 픽셀 수	320 x 180 픽셀 (H x V)
크기	600 x 337.5 x 25mm(W x H x D)
중량	4.5kg/타일
LED 수명	100000시간(비디오-50% 밝기)
픽셀 밀도	284444 (픽셀/m <sup>2</sup> )
밝기	500니트
화면 재생 빈도	3,840Hz
내부 처리	16비트
색상	281조
색온도	2000K ~ 9500K 조정 가능
제어	노바스타
화면 재생 빈도 @60Hz	3,840Hz
가로 시야각	155° +/-5°(50% 밝기에서)
세로 시야각	140° +/-5° (50% 밝기에서)
밝기 균일성	>98%
디밍	0-100%
대비	≥5000:1
소비전력	175W/m <sup>2</sup> (일반) 460W/m <sup>2</sup> (최대)
방열	584BTU/h/m <sup>2</sup> (일반) 1534BTU/h/m <sup>2</sup> (최대)
작동 전원 전압	100-240V / 50-60Hz
작동 온도	10-95%
IP 등급	IP30
서비스 용이성	전면 서비스
모듈 교체	자석이 자동으로 흡착
이음새 보정	카메라 자동 보정 기능 보정
인증	CCC
보증	1년

**작성일: 21 May 2026**

© 2026 Barco nv. All rights reserved. 서면 허가 없이 전체 또는 부분을 복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. 모든 브랜드명 및 제품명은 상표, 등록 상표 또는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. 지속적인 혁신으로 인해 정보 및 기술 사양은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최신 사양은 [www.barco.com](http://www.barco.com)을(를) 확인하세요.